

## 지역 소식통

정읍시 보건소, 저소득층 어르신들 무료 틀니 지원

정읍시 보건소가 저소득층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무료 틀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의치(틀니) 지원 사업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다. 단, 이전에 보건소에서 의치 시술비용을 지원받았거나 치과의원에서 7년 이내 건강보험 적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구강 검진 후 틀니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 받으며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진료소)를 방문해 진행하면 된다.

사업 추진 절차는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1차 검진을 통해 전신 건강과 구강 상태를 확인한 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정자는 치과의원에서 무료로 의치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5년간 사후관리와 사후관리비도 지원받게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 정읍시, 양봉농가 경영 안정 위해 본격 지원

정읍시가 양봉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2억9000만원을 투입하며 꿀벌 보호와 양봉산업 활성화에 나섰다.

시는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분(꽃가루) 지원에 9800만원, 벌통 지원에 1억원, 소초광(인공 꿀벌집) 등 양봉기자재에 8200만원, 밀벌퇴치장비와 채밀카 등 꿀 생산장비에 1300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책은 겨울철 꿀벌 실종과 폐사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1월 중 보조사업을 분석 운영해 고질적 양봉산물 생산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양봉사업 육성은 농가의 소득 창출뿐만 아니라 화분 수정 개개체로서 과일 생산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 고창사랑기부금, 지역발전에 활용

동학농민혁명 홍보관 리모델링 4억9000만원 · 아이들 교육지원사업 4000만원 등

지난해 고창군의 고향사랑기부금이 7억원 가까이 모이면서 지역발전 사업 등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7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총 6억997만6000원을 모금했다. 모금방법별로는 온라인(고향사랑 E음) 5억5361만4000원, 오프라인(농협 창구 등) 모금액 1억4036만2000원이다. 이는 기부제 첫 시작해인 2023년 대비 약 7.7% 늘었다. 10만원 이하 소액 기부자가 724건을 기록하며 인정적인 기부 문화 확산을 보여졌다.

기부자에게 제공된 담례품도 1억 4990만933원(포인트 10만원 기부시 3만 포인트 지급)에 달했다. 인기 담례품에는 고창쌀이 1위를 차지했고, 이어

고창시립상품권, 고창풍천장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부금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쓰이고 있다. 기존 접근성이 떨어졌던 동학농민혁명 홍보관(공용면 엑스피언스)은 사업비 4억9000만원을 들여 고창군 한 중심(전봉준 장군 동상 옆)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한창이다.

또 행복누리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이 모이면서 농어촌 지역 아이들의 학습·예체능·정보화 등에 족넓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연말부터 지정기부가 가능해 지면서 고창군 고향사랑기부제도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1월6일 현재 영선고 야구부 지원에 2239만원, 고창 꿈나무 해외연수 지원에 1526만원이 모금중이다.

기부는 연말(11월, 12월)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를 반영해 비수기(4월~9월)에도 기부 독려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여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며, “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금은 농산물 판매지원, 청소년 지원 사업 등 지역 사회의 미래를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

고창군과 대한민국 위한 신년 조찬기도회 개최



고창군과 대한민국을 위한 신년 조찬기도회가 고창군 기독교연합회(회장 주경만 목사) 주최로 7일 군청 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조찬기도회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 기관장과 교회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고창군의 발전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김성식 목사와 김건호 목사는 각각 ‘고창군 발전과 안녕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특별 기도를 인도하며 지역 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았다. 또한 고창군 기독교연합회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 사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고창군 기독교연합회 주경만 목사는 “고창의 발전과 화합, 그리고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번 기도회를 통해 고창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은 2025년을 사전 새해를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며, “고창군이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 교회에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 ‘지속 가능한 축산업’... 악취 저감 시설 지원 나서

## 정읍시, 8억8000만원 예산 투입

정읍시가 축산업에 문제 해결을 위해 8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악취 저감시설 지원과 환경 개선 사업에 나섰다.

축산업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동시에 꾀하는 이번 사업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의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공인 인증 기관의 실증을 거쳐 검증된 시설을 중심으로 양돈농가에 사업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

원 대상은 액비순환시스템, 바이오커튼, 바이오플터, 미생물배양기, 엔더디킬 악취저감시스템 등으로 축산 농가의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들이 포함된다.

또한 축산의 개선사업도 시행된다. 동립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 사업은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기축분뇨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화방류시설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이와 더불어 축사 내·외부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시는 축

사 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냄새저감제를 활용한 집중 관리에 나서며, 중점 관리 농가 20호에 냄새저감제 구입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냄새저감 관련 컨설팅도 실시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돋운다.

이학수 시장은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악취 저감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분뇨 처리와 악취 민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 고창군, 2025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회 개최

## 77개 핵심관리 사업 · 127개 주요 업무계획 등 논의



고창군이 심덕섭 군수 주재로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 실현을 위한 군정 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새해 업무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6~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보고회는 실·관·과·소별 새해 추진전략, 77개의 핵심관리사업 및 127개 주요 업무계획,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 25년에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된다.

올해 고창군 주요 핵심관리사업은 △서해안철도(새만금~목포)국가계획 반영 △고창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 △신활성산업단지 첨단ESG 기업유치

고창군은 주요 핵심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단계별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사업 일정별 추진계획을 수시로 관리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속도감 있게 정립하고, 군정목표 추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다”며 “공약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은 민선8기 공약 이행을 위해 분기별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공약이행평가단 평가회의를 개최해 공약추진 상황을 투명하게 점검하고, 공약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기자

## 정읍 청년취업시험준비반, 취업 준비 첫걸음 시작

정읍시가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며 취업 역량 강화에 박차를 기한다.

시는 지난 6일 청년인구 유출방지와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운영 중인 청년 취업시험 준비반의 2025년 개강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개강식에는 수강생 112명과 위탁업체 관계자·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교육과정과 이용수칙을 안내받고 공무원 시험과 공기업 시험을 위한 전문 강사의 강의가 이어졌다.

청년취업시험 준비반은 공무원 직장반, 공무원 동영상반, 공기업(NCS)반 등 세 가지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올해는 공무원 직장반에 행정학과 목을 새롭게 추가하고 공기업(NCS) 과정을 기존 동영상 강의에서 직강으로 전환해 수강생들의 실질적인 경쟁

력을 강화하도록 프로그램을 대폭 개선했다.

이 프로그램은 2023년부터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시작된 시의 대표적인 청년 취업지원 사업으로 지난 2년 동안 공무원 및 금융권 등에서 총 20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지역 내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올해도 많은 합격자가 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수 시장은 “앞으로도 청년취업 시험 준비반 수강생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청년들이 정성을 띠나지 않고 경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 부안군립도서관, 겨울 독서교실 운영

부안군립도서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겨울 독서교실을 지난 6일 개강하고 오는 1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독서교실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독서습관 형성과 도서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군립도서관 다큐적설에서 오전 1시 30분부터 4시 30분 까지 진행된다.

그림책과 함께 떠나는 마음 여행을 주제로 나와 우리의 소중함을 알고,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 책을 통해 더 건강한 정서발달과

관계 맺기, 소통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즐거운 경험 쌓기 시간을 갖는다.

‘인되어’, ‘아 진짜’, ‘호랑이 생일날이 였다’, ‘자유낙하’ 등의 다양한 책을 읽고 롤리주로 나 표현하기, 입체 카드 만들기와 이야기 연결하기 등 각각적인 독후활동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를 높인다.

참여 학생 25명 중 우수 학생은 국립 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과 군수상(발표, 혁률상)을 수여받게 된다.

/부안=김석진기자

## 착한신고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